

## 5-05 성경적 축복

마태복음 11 :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은 기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이런 말조차 생소하여 이해하기를 힘들어 합니다.

### I. 기독교인의 Life Style-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

#### 1. 안식의 정의

기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안식의 정의부터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을 대로 ,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1 :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 놓고 쉬는 것이 안식입니다.

출애굽기 33 : 14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sup>14</sup> **And he said, My presence shall go with thee, and I will give thee rest.**

이 세상의 인간은 두 가지의 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에서 안식이 필요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수고는 labour 로, 짐은 burden 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labour 는 의식주의 필요를 위해 수고해야 하는  
일의 짐이요, burden 은 구원을 위한 영적인 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이런, labour 와 burden 의 짐을 갖고 살아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안식은 자신의 육신적, 영적 필요를 다 예비하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믿음으로 인하여 이런 labour 와 burden 에서 자유케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되찾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주안에서 모든 짐을 내려 놓고 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 :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께 이런 집에서 자유로와야 할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 2. 안식을 잃어 버린 삶의 모습

사탄의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 : 43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쉬려고 하여도 쉴 수 없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오늘 날도 사탄은 쉬려고 해도 쉴곳없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에게도 주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염려와 근심을 집어 넣어 공연히 바쁘게 만듭니다.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생각들은 자꾸 다시 떠오르게 하여 분주하게 만듭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이런 생각들은 꼬리를 물고 우리 생각 속에 떠 올라 떼어 버리려 해도 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쉬려고 해도 쉴 곳이 없는, 안식이 사탄이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 넣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 : 11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식을 잃어 버린 사람의 모습을 카인의 삶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 : 16 가인이 여호와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창세기 4 : 17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놋 땅이라는 의미는 유리하는 땅, 방황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카인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 고향을 잃고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방황하는 사람의 대표적 영혼의 상태는 불안입니다. 불안한 인간은 자기를 보호하는 일이 최우선의 과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경의 불안으로 부터는 자기를 보호해야 할 성을 건축하고, 존재의 유한의 두려움에서는 종자를 번식하여 자식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안주하고 보호하려 하는 것, 이 것이 버림받은 인간의 대표적 모습인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개인과 국가, 사회는 이 자기의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피란처는 이런 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나의 피할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시라”

### 3. 기독교인들의 본질적인 라이프 스타일

기독교인의 삶의 스타일은 자기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보호자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안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하루의 개념은 세상 사람들의 하루 개념과 다릅니다.

성경적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 : 5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하루는 저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금요일 밤부터 시작됩니다.  
레위기는 그 준수 시간을,

레위기 23 : 32 이는 너희의 쉼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달 구 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스타일은 안식 한후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믿고 안식한  
후 그 후에 일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듣고 안식한 후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식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깃발이 믿음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구별되었다는 안식의 깃발이 올라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 : 13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의 뜻은 너희를 구별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는 너희가 내안에서 안식 함으로 내가 너를 세상 사람과 구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는 표식이 바로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역경,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예비하셨다는 믿음으로 먼저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스타일은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천방지축으로 뛰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믿음으로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식의 본질입니다.

세상 풍파 너를 둘러 덮을 때에, 삶이 갈릴리 바다처럼 요동할 때도,  
“너희는 내 안에서 안식하라, 그럼으로 인하여 네가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 4. 안식의 구분 ;

##### <창조 사역에 기초한 안식>

아담이 지음을 받은 후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 것입니다. 아담은 제 6 일에 지음을 받고 나서 곧바로 안식일을 맞이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안식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창세기 2 : 2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 : 3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지구상에서의 첫날을 맞이하였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본질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데 그 시작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이 지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인생의 삶 전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녀가 그 부모를 위하여 예비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예비하는 것이라(고후 12:14).

자녀를 낳은 후 자녀의 필요를 예비하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신 후 그 자녀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태도는 인생을 살아 가면서 무엇을 먹을가 무엇을 입을가 염려 근심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는 믿음으로 안식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다 예비해 놓으셨다.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눈보라가 불어쳐도 마음 놓고 믿음으로 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 <구속의 개념에 기초한 안식>

안식에는 이와 같은 창조에 근원을 둔 안식일의 개념 말고, 구속에 기초한 안식의 개념이 있습니다.

신명기 5 : 15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기초한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속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셨으므로, 구원 사역을 필하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먼저 안식하는 것이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을 토대로하여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보면 우리의 현재의 LIFE STYLE 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Life Style 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에덴의 안식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잃어 버린 사람의 대표적 심리 상태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모두 불안을 가지고 살아 갑니다.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난 인간은 세 가지 면에서 안식을 잃고 살아 갑니다.

“영혼 안식의 상실, 범사의 안식의 상실, 건강의 안식의 상실입니다. 영혼의 불안, 범사의 불안, 건강의 불안입니다.

“영혼 안식의 상실은 죄가 들어 옴으로 인한 깨어진 하나님과의 불화 관계에서 기인하며, 범사의 안식의 상실은 자기보존을 위한 모든 필요를 자기가 예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건강의 안식의 상실은 죽음의 공포 즉 질병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아담의 타락은 이 세 방면에서 안식이 상실되었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 세 가지 면에서 안식이 회복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락하기 전의 축복된 생활, 타락으로 인한 저주, 예수님의 속죄로 인한 축복의 회복, 삼단계에 걸쳐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